

교육세·농특세 폐지 추진 지방교육·농어촌 고사 위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과 지방교육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3조3천억여 원, 올해 3조7천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농특세 재원이 없어져 농어촌 회생 및 복지향상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도의 농어촌 예산이 전체 농어촌 예산의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도에서만 1조원 이상의 농특세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폐지 대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나 성격상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원되는 특별세제인 만큼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쇠고기

시장의 개방, 농업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특세마저 폐지될 경우 농도인 전남도는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또 교육세도 폐지하게 되면 지방교육 교부금 대신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재정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방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 교부금이 3조2천700억여원(광주 1조700억여원·전남 2조2천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80~87%에 달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조세 체계를 단순화해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정치권과 농어민, 교육계에서는 농어촌 개발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로 배려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보완 대책에 따라더라도 교육재정은 현재보다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특세와 교육세 폐지 추진에 대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관련 단체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 등 민주당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지난 10일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성명을 내고 결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도 한국교육학회와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 298개 교육시민단체와 전교조, 교총까지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농특세와 교육세 폐지 등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가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는 만큼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정성필기자 jkpark@

“어려울 땐 나눠야죠”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 등장한 구세군 자선냄비에 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돈을 넣고 있다. 광주 구세군 교회는 오는 24일까지 우체국, 메가박스 시거리 앞, 광주투게이트 입구 등 모두 4곳(우인 자선냄비 포함)에서 모금활동을 벌인다. <관련기사 15면>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리키? 아이키?
성정클리닉

기준금리 1%P 파격 인하 한은, 연 3%로...역대 최저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행 4.00%에서 3.00%로 1.00%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현행 연 2.25%에서 1.75%로 낮췄다.

〈관련기사 5·11면〉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9일 5.0%로 내린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4.25%로 0.75%포인트나 파격적으로 인하했고 지난달 7일에는 4.00%로 낮췄다.

기준금리 3.00%는 역대 최저치인 3.25%(2004년 11월11일)보다 0.2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통화정책이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보다 바뀐 1999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3.0%로 내려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또 그동안 한은이 1.00%포인트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사례는 없었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의 빠른 하강을 막고 자금경색을 풀아주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국내 경기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데다 수출도 감소로 돌아서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세계경제의 침체로 향후 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어 “앞으로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상황은 ‘금융 비상사태’, ‘통화신용의 심각한 수축’의 경계선에 와 있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248명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2천499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직자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해 모두 2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공직자 중 일반 행정직의 경우 3급 이상 고위직은 1명도 없었으나 교육공무원은 교수 2명, 교장 8명 등 고위직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민주당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21명(산하기관 8명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전남도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부당 수령 공직자 가운데 4~5급 공무원이 21명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5급 이하 공무원이었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달 초 자신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현황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교육 공무원 가운데에는 고위직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20명, 전남도교육청 73명 등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8명의 초·중·고 교장이 포함됐다.

광주·전남지역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부 2명, 국세청 2명, 농촌진흥청 2명, 지방법원 1명, 병무청 1명, 보건복지부 1명, 조달청 1명, 지식경제부 1명, 행정안전부 1명, 해양경찰청 1명, 통계청 1명 등이었다.

특히 교과부 소속 2명은 국립대학 교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감사전

호남한샘학원

광주일보사는 가을을 울리는 목소리의 가락(조용) 향사의 초빙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바로 다윗의 노래로 승리가 내린 향사곡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감성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수입니다.

‘향사의 노래’ ‘우리키? 아이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다윗의 노래’ 등 최근 발매한 4집 수록곡과 ‘향사곡’, ‘향사의’, ‘국립법정식’ 등 기존 앨범의 히트곡들을 들려줍니다.

또 ‘향사곡’의 ‘향사곡’, ‘향사곡’을 기존 가요를 감상할 때와는 다른 감성으로 부르는 시간은 이번 콘서트의 백미가 될 것입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 당시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운 이번 공연 ‘우리키? 아이키?’로 2008년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08년 12월 28일(토) 오후 6시
-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광주문화재단
- 주관: 한샘학원
- 문의: (062)2200-0541, 1566-0785
- 예매: www.ticketmaru.co.kr

뉴스에도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연일뉴스